

# 배달 증가에 오토바이 사망사고 급증

### 광주 지난해 17건 '4배' 증가...과속·신호 위반·역주행 등 만연 배달업체 안전교육 실시·지속 단속으로 난폭 운전 뿌리 뽑아야

광주지역의 무질서하고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 문화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급증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음식 등 배달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집콕'의 영향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증가한 데다 상당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과속·신호 위반, 심지어 역주행 등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꾸준히 오토바이 단속을 시행했지만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의 오토바이 운전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며 경찰의 지도·점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62명으로 전년도(49명) 비해 26.5%증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3079명) 수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광주에서는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

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에 이어 지난해 3079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85명에서 2017년 117명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75명, 2019년 49명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사망자가 늘었다.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건이 8119건(2019년)→7659건(2020년)으로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사망자는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2019년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4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4배가 넘게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배달 경쟁이 심해져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심각해진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주머니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위험을 감

수해야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도로에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사람들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주행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인도를 달리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위험한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 급증에 따라 경찰도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도심의 위험 운행이 여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백승권 광주시 교통문화혁신원 과장은 "오토바이도 주·야간 전조등을 켜 시인성을 높이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면서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난폭운전·곡예운전 단속과 헬멧 미착용 단속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유튜버 대신 의사 될래요 코로나에 초등생 희망직업 바뀌어

코로나19 여파에 보건·의료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에서 의사가 교사와 유튜버(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밀어내고 2위로 올랐다.

초등학생들의 선호도 1위는 운동선수였고 3위는 교사, 4위는 유튜버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해 7월~10월 초·중·고생 2만 32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부동의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다. 2위는 의사로 1년 전 4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2019년 2, 3위를 차지했던 교사와 크리에이터는 각각 한 계단씩 떨어졌다.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했다.

중학생의 경우 1~3위가 1년 전과 동일하게 교사, 의사, 경찰관 순으로 집계됐다. 4위는 군인, 5위 운동선수, 6위 공무원, 7위 뷰티디자이너, 8위 간호사, 9위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10위 조리사(요리사) 순으로 집계됐다. 의사 순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위였으나 간호사는 10위에서 8위로 올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등학생 희망직업 1순위 역시 교사였다. 2위는 간호사, 3위는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4위는 군인, 5위는 의사로 파악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



코로나 물렸거라 오는 26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천 두물머리에서 시민들이 쥐불놀이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대,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인증유지 '유학생 유치 탄력'

광주대학교가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인증' 결과 인증유지 대학으로 선정됐다.

광주대는 지난해 2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평가에서 2022년 2월까지 인증대학으로 선정됐으며,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의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있다.

또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와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가산점 부여, 해외 한국 유

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를 확대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지표인 불법 체류율과 중도 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유학생 언어능력 등 교육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

# 3·1절을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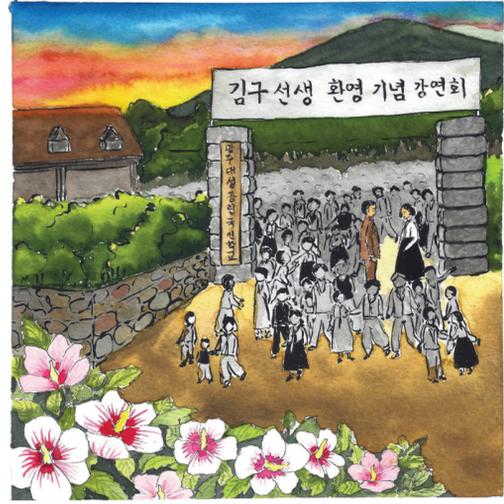
## 게임으로

###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역사추리형 게임 '함성 1919' 제작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광주백범기념관이 102주년 3·1절을 맞아 온라인 역사추리형 게임 '함성 1919'를 제작했다.

이 게임은 (주)세경 S&T의 후원으로 지역에서 일어났던 광주 3·1운동의 역사를 학생들과 지역민에게 알리고 그 유지를 잇는 백범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함성 1919'는 가상 인물 옥이와 철이가 겪는 광주 3·1운동에서 수피아여고 출신 열사와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해방까지, 또 현재의 대성초에서 열린 김구 선생의 환영 기념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광주백범기념관이 함께 제작한 역사추리형 게임 '함성 1919' 삽화.

강연회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다.

이야기 과정에서 제시된 다섯개의 문제를 통해 광주 3·1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방법은 광주백범기념관 누리집(홈페이지)의 참여마당 공지사항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할 시 선착순으로 310명에게 소정의 선물이 증정된다.

문정표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우리 지역의 장소들과 역사적 사실들을 연계해 이해하고 의미를 갖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민 스스로 역사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사진으로

### 광주기독병원 '3·1운동과 광주제증원' 전... 19일까지

광주기독병원은 1919년 광주 3·1만세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제증원과 제증원 직원들을 조명하는 '3·1운동과 광주제증원' 사진전을 갖는다.

오는 3월 19일까지 병원 로비의 제증원사관 앞에 상설 전시될 이 자료들은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광주제증원 직원들의 3·1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한 자료들이다.

광주기독병원의 이번 사진전은 3·1운동 무렵 광주제증원 현황, 광주3·1만세운동 당시 배포된 독립선언서 및 유인물, 광주제증원 직원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소개 및 재판 판결문, 조선독립광주신문,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등의 사진자료를 설명과 함께 전시했다.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1919년 3월 10일 만세시위에서 수피아여학교, 숭실학교뿐 아니라 광주제증원 등 기독교 기관과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1919년 당시 광주제증원 직원 중 8명(최흥중, 황상호, 홍덕주, 장호조, 김금석, 김안순, 김희순, 최경동)은 광주3·1만세운동과 관련해 인해 옥고를 치렀는데, 이는 당시 광주제증원 규모로 볼 때 선교사들을 제외한 대다수 한국인 직원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